

◆ 한자 시험 대비 빈출 문제 (3급)

1. 다음 한자의 독음을 쓰시오.

- (1) 履歷書 (2) 疏漏 (3) 經穴 (4) 節電
- (5) 繫留 (6) 靈魂 (7) 閑職 (8) 沿岸
- (9) 貯藏 (10) 乾濕 (11) 崇尚 (12) 既婚
- (13) 茫漠 (14) 冥想 (15) 若輩 (16) 雄姿
- (17) 逐出 (18) 毒蛇 (19) 游泳 (20) 拜辭

2. 다음 한자의訓과 음을 쓰시오.

- (1) 點 (2) 庚 (3) 徒 (4) 肺
- (5) 亭 (6) 靜 (7) 損 (8) 券
- (9) 悔 (10) 盤 (11) 亂 (12) 味
- (13) 柳 (14) 吹 (15) 了 (16) 聚
- (17) 塗 (18) 邦 (19) 到 (20) 乎

3. 다음 글 가운데 괄호에 들어갈 한자를 한자로 쓰시오.

- (1) 자고로 인류에 거스르는 범칙은 (극형)으로 다스린다.
- (2) 세상살이가 (환난)하다.
- (3) (전쟁)이 멈추어야 평화시대가 온다.
- (4) 남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 주면 안 된다.
- (5) 이번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다.

4. 다음 訓과 음을 지닌 한자를 쓰시오.

- (1) 가집 지 (2) 엮을 구
- (3) 절제할 제 (4) 기릴 송
- (5) 칠 벌

5. 다음 한자의 반대 또는 상대되는 한자를 쓰시오.

- (1) 善 ↔ () (2) 長 ↔ ()
- (3) () ↔ 憎 (4) () ↔ 防

6. 다음 한자와 뜻이 비슷한 한자나 한자어를 골라 그 번호를 쓰시오.

- (1) 考 - (): ① 子 ② 慮 ③ 淸 ④ 創
- (2) 附 - (): ① 化 ② 調 ③ 屬 ④ 緣
- (3) 扶 - (): ① 道 ② 盜 ③ 修 ④ 助

7. 다음 빈 칸에 들어갈 한자를 적어 사자성어를 완성하시오.

- (1) 溫()知斯 (2) ()禍爲福 (3) 燈下不()

8. 다음에서 장단은 관계없이 동음이의어를 정자로 쓰시오.

- (1) 對備 - (): 부처의 큰 자비
- (2) 詩人 - (): 옳다고, 또는 그러하다고 인정함
- (3) 錄音 - (): 푸른 잎이 우거진 나무의 그늘

9. 다음 한자의 뜻을 고유어(순수 우리말)로 조건에 맞게 빈칸을 채워 쓰시오.

- (1) 旬葬 - 죽은 지 ()만에 지내는 제사(조건:2음절)
- (2) 遷都 - ()을 옮김(조건:2음절)
- (3) 皆勤 -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거나 출근함(조건:2음절)

10. 다음 한자의 약자를 쓰시오.

- (1) 壓 (2) 廣 (3) 壓

한자 만화 코너/한통이의 어린이 한자교실(스무번째 마당)



재미있는 한자성어

형설지공(螢雪之功)

(개똥벌레 형, 눈 설, -의 지, 공로 공)

지역 : 반딧불과 눈을 비추어서 공부함.

의역 : 가난한 환경 속에서 굴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함. 고학(苦學).

반딧불을 비추어 공부한 주인공

동진시대 차운(車胤)은 어려서부터 태도가 공손하고 부지런하여 온갖 책을 많이 읽었다. 그러나 집안이 가난하여 독서할 때 등불에 기름 없는 날이 많았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깨끗한 비단 주머니에 수십 마리의 개똥벌레(螢)를 잡아넣어 밤이 되면 이것으로 책을 비추어 가며 읽기를 계속했다. 그 후 성장하여 벼슬이 상서랑(尙書郎: 황제의 측근에서 조서를 맡음)에 이르렀다.

눈빛을 비추어 공부한 주인공

또 같은 시대에 손강(孫康)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역시 집안 형편이 어려워 등불을 밝힐 기름이 없었다. 그래서 겨울이면 눈(雪)에 비추어서 책을 부지런히 읽었다. 그 뒤에 벼슬이 어사대부(御史大夫: 대신)에 이르렀다.

이 두 일화에서 형설지공(螢雪之功)이 유래했다.

현두자고(懸頭刺股)

(매달 현, 머리 두, 찌를 자, 넓적다리 고)

상투를 들보에 매달고 넓적다리를 송곳으로 찌러가며 공부에 매진함

전국시대의 유명한 인물인 소진(蘇秦)은 귀족선생 밑에서 공부를 하고 진(秦)나라에서 벼슬을 구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행색은 그야말로 거지꼴이었다. 이 행색을 본 아내의 방으로 나오지 않고, 형수는 밥도 주려 하지 않았으며, 부모는 함께 말하기도 싫어했다.

그러자 소진이 탄식하며 말했다.

“아내는 나를 남편으로 대하지 않고, 형수도 나를 시동생으로 대하지 않고, 부모도 나를 자식으로 대하지 않으니 이는 나의 죄로다.”

소진은 그 날부터 두문불출하고 공부하는데 졸음이 쏟아지며 어금니를 깨물고 송곳으로 자신의 넓적다리를 찌러 피가 다리까지 줄줄 흐르곤 했다(引錐自刺其股, 血流之足 -인후자적기고, 혈류지족). 그 뒤에 합종책

(6국이 힘을 합쳐 강한 진나라를 대항해야 한다는 당시 외교정책)의 우두머리가 되어 6국의 재상이 되었다. 어느 날 소진의 아내와 형수는 뽕처럼 바람에 날작 앞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쳐다보지도 못했다. 이런 모습을 본 소진이 웃으며 형수에게 말했다.

“형수님, 전에는 그렇게 거만하시더니 오늘은 왜 이리 공손하십니까?”

그러자 형수는 앞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사과하며 말했다.

“시아우님께서 지위가 높아지고 부자가 되었으니 그러지요.”

소진이 탄식하며 말했다.

“아, 사람이 공색하면 부모도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부귀해지면 친척들도 두려워하니 권력과 부귀를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

부수(部首)의 정의(定義)와 유래

◆ 부수(部首)의 정의(定義)

부수(部首)란 한자(漢字)의 외형적 한 부분(部)이면서 전체 의미를 상징(首)하는 것이다. 자세하게 표현하면 한자의 자형(字形) 구성 면에서 낱개의 글자마다 내포되어 있는 의미의 부호(符號) 부분을 추출하여 한 부분(部)을 만들고 그 부분이 공통된 형태의 한자들을 분류하여 부수(部首)로 설정한 것이다. 결국 부수는 한자(漢字)의 핵심(核心) 의미이자 한자 분류(分類)의 기본 원칙이 되는 것이다.

특히 육서(六書) 원리의 '형성자(形聲字)'에서 뜻(의미)부분이 바로 그 한자의 부수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곧 한자의 80% 이상인 형성자의 효과적 이해는 부수(部首)의 이해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 부수(部首)의 유래(由來)

부수(部首)의 발생은 뜻글자(표의문자(表意文字))인 한자의 특성으로 인해 기하급수적(幾何級數的)으로 늘어나는 문자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할 필요성에서 착안(着想)된 것이다. 최초의 부수의 개념을 창안(創案)한 사람은 중국 한(漢)나라 때의 경전(經典)학자이자 문자(文字)학자였던 허신(許慎)이라는 인물이다.

자성(字型:문자의 성인)으로 불리는 허신이 세계 최초의 자전(字典)이며 현존하는 문자학(文字學)의 최고 권위를 지닌 '설문해자(說文解字)'를 만들었는데, 계통별로 540개의 부수(部首)를 분류해 당시 한자(漢字) 9,353자를 체계적으로 분류했고, 또한 구성원리인 '육서(六書)'의 법칙으로 한자의 구조를 설명했다.

◆ 부수의 구성(構成)과 배열(排列)

부수는 현재 1획부터 17획까지 총 214개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변천되어 왔기에 정확한 객관성이나 과학적 분석면에서는 다소 의문시(疑問)되는 부분도 있다. 의미가 중복이 되는 경우나 의미 전달의 미흡, 분류의 미흡 등이 있는데(血, 血, 首, 麻, 黑, 鼓 등), 특히 글자의 총 획수(總劃數)가 적어 의미 부분의 추출이 곤란한 한자의 경우 형태가 유사한 부수에 일괄해서 포함시킨 흔적이 보이기도 한다.

또한 형태면에서 단독(單獨)의 글자로 이루어진 부수도 있지만 상용(常用)이 되지 않는 부수도

다수 있다.

부수의 구조(構造)는 전체 214개 가운데 자원(字源)에 따라 보면 형상을 본뜬 '상형자(象形字)'가 149자, 추상적 상징의 약속인 '지시자(指事字)'가 17자, 의미끼리의 결합인 '회의자(會意字)'가 21자, 의미와 발음의 결합인 '형성자(形聲字)'가 27자이다. (구조별 부수의 갯수는 문자학(文字學) 연구 학설(學說)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여기에 자원(字源)에서 확대된 '가차(假借)'의 개념으로 설명되는 부수들도 있고 육서의 분류가 중복된 부수지도 있다.

◆ 부수의 이해(理解)

이와 같이 오랜 변천 과정으로 인해 다소 불합리(不合理)한 측면도 있지만, 부수(部首)는 한자의 핵심이자 체계적 분류 원칙으로 한자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해왔고, 사전(字典) 활용을 넘어 한자의 올바른 이해 측면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에서 그 이해의 방향을 잡아갈 것이다.

아울러 부수의 배열(排列)은 과거 중국의 '옥편(玉篇)' 분류 방법인 의미에 따른 계통 분류로 배열된 것이 많았으나, 근래의 배열 방법은 거의 획수(劃數)에 의한 순서로 배열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에 들어갈 한자를 <보기>에서 찾아 그 번호를 쓰시오.

<보기>

- ① 化 ② 況 ③ 法 ④ 對

가. 어떤 사람이든 진실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나. 변(화)을 두려워하면 발전이 없다.
다. 너는 이 상(황)에 잠이 오니?
라.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

◆한자 시험 대비 빈출 문제(5급)정답◆

- 1. (1) 이력서 (2) 소루 (3) 경혈 (4) 절전 (5) 계류 (6) 영혼 (7) 한직 (8) 연안 (9) 저장 (10) 견습 (11) 승상 (12) 기혼 (13) 망막 (14) 명상 (15) 악배 (16) 응자 (17) 축출 (18) 독사 (19) 유영 (20) 조사
- 2. (1) 점 점 (2) 별 경 (3) 무리 도 (4) 허파 폐 (5) 정자 정 (6) 고요할 정 (7) 덜 손 (8) 문서 권 (9) 뉴욕월 회 (10) 소반 반 (11) 어지러울 란 (12) 맛 미 (13) 바들 류 (14) 볼 취 (15) 마찰 료 (16) 긴할 긴 (17) 칠할 도 (18) 나라 방 (19) 이름 도 (20) 어조사 호
- 3. (1) 極刑 (2) 險難 (3) 戰爭 (4) 靚面 (5) 眞實
- 4. (1) 持 (2) 構 (3) 制 (4) 頌 (5) 伐
- 5. (1) 惡 (2) 斷 (3) 愛 (4) 攻
- 6. (1) ② 慮 (2) ③ 屬 (3) ④ 助
- 7. (1) 故 (2) 轉 (3) 明
- 8. (1) 大悲 (2) 是認 (3) 緣陰
- 9. (1) 열을 (2) 도움 (3) 출석
- 10. (1) 壓 (2) 廣 (3) 壓

	相	法	
필화	대할 때	어길 위	
皇	狀	孵	
입금 채		하물며 황	

